

# 日本, 알라스카産 石油輸入 검토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美 國에 이어 세계 제2 위의 石油輸入國인 日本이 지난 81년부터 거론되어 오던 알라스카産 石油의 수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① 日本政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對美貿易黒字을 축소시켜 美國과의 무역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石油의 導入先을 다변화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② 日本의 精油業界도 石油輸入費用의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③ 美國정부도 그동안 알라스카産 石油의 對日수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던 輸出管理法<sup>1)</sup>의 시한이 지난 9월에 종료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美國정부가 알라스카産 石油을 天然가스 및 石炭과 함께 수출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도 石油導入先의 다변화와 輸入費用의 절감을 위해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하는 동시에 石炭 등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油質이 日本의 精油施設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알라스카産 石油輸入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日本정부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日本의 對美貿易黒字을 줄이라는 美國의 압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다 中東政治情勢의 불안이 심화되어 中東으로부터의 石油輸入依存度를 낮출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79년에 61억 달러에 머물렀던 日本의 對美

貿易黒字이 82년에는 124억달러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는 2,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對美貿易黒字의 확대는 美·日貿易마찰을 야기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82년중 日本의 全体石油輸入에서 中東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1%로 美國의 20%나 유럽의 4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輸入費用절감효과

이와 함께 日本의 精油業界도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이 비슷한 石油을 中東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수입비용이 배럴당 1.5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알라스카州정부가 石油生産会社들로부터 租稅料로 받은 石油을 다시 石油会社로 넘겨줄 때 적용하는 가격은 배럴당 23.17달러이다. 따라서 日本이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할 경우의 輸入價格은 石油会社들의 諸經費 및 이익을 감안해도 배럴당 2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격은 품질이 비슷한 사우디産 重質油의 公示價인 배럴당 26달러보다 1달러가 싸다. 또한 中東에서 日本까지의 石油輸送費는 배럴당 1달러 정도인데 비하여 알라스카에서 日本까지의 石油輸送費는 0.5달러에 불과하여 배럴당 0.5달러의 輸送費 절감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알라스카産 石油輸入을 검토하기 위해 美國을 방문했던 日本石油連盟의 調査團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당장 日本이 수입할 수 있는 알라스카産 石油의 量은 日本全体石油輸入의 2%에 해당하는 7만 배럴/日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알라스카의 하루 産油量은 160만 배럴인데, 이중 140만 배럴은 石油生産会社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20만 배럴은 알라스카州정부가 租鉅料로 받고 있다. 그런데 石油生産会社들은 이미 美本土의 精油会社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尙日輸出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알라스카州정부도 이미 13만 배럴의 美國內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日本이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 輸入이 가능한 量은 알라스카州정부의 取得分 중 나머지 7만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알라스카의 石油埋藏量이 112억~140억 배럴로 美國 전체매장량의 1/2에 달하고 있고, 현재도 増産計劃이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알라스카産 石油의 輸出潜在力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美政府도 적극적인 자세

美國정부도 알라스카産 石油의 尙日수출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라스카産 石油을 日本으로 수출하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中南美産 石油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현재 美本土로 판매되는 하루 150만 배럴의 알라스카産 石油 중 약 50%는 캘리포니아 등 美國 서해안에서 소화 가능하나, 나머지 50%는 파나마運河를 거쳐서 美國의 동북부로 수송되고 있다. 그런데 알라스카의 石油輸出港인 발데즈에서 美國 동북부까지 石油을 수송하는 비용은 배럴당 4~5달러에 달해 中南美에서 美國 동북부까지의 石油輸送費보다 월등히 높다.

둘째, 알라스카油田의 産油量을 수요의 변화등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알라스카油田은 極寒地에 있기 때문에 石油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油田에서 발데즈

港까지 1,280km에 달하는 送油管을 설치하는 데도 80억 달러나 투자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의 早期回收를 위해서 최대한의 생산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油質과 氣候條件 때문에 産油量을 조절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美國과 日本에서 日本이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다. 먼저 美國에서는 파나마運河에 送油管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한 石油会社들과 美國內 石油輸送会社 및 이에 종사하는 3,000여명의 근로자들은 알라스카産 石油의 尙日輸出이 자기들의 수송량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美國이 原油輸入國이기 때문에 호르무즈해협 의 봉쇄 등으로 世界 石油供給量이 크게 줄어들 경우 美國이 알라스카産 石油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石油의 안정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알라스카産 石油輸入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石炭 등도 수입요청

또한 美國정부는 알라스카産 石油와 함께 알라스카産 天然가스 및 石炭을 輸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日本은 이미 에너지需要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에 天然가스와 石炭의 開發輸入 또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다, 지난 수년동안 에너지需要가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의 수요증가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여 알라스카産 天然가스나 石炭을 輸入할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日本의 알라스카産 石油輸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石油輸入의 中東依存度가 日本 이상으로 높은 우리 나라도 石油導入先의 다변화와 石油輸入費用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알라스카産 石油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主宗에너지源을 石油에서 石炭으로 바꾸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日本과는 달리 앞으로 石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 石炭의 開發輸入이 별로 없기 때문에, 美國이 알라스카産 石油와 함께 알라스카産 石炭 및 天然가스도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 消費国動向 □

이용하여, 알라스카産 石炭 등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해 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 레이건 大統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어 있는 「韓美間の 에너지協力増大」와

부합된다는 점에서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註: 1) 이 법은 1979년에 제정된 것으로 原油와 天然가스의 輸出을 금지하고 있다.

〈表-1〉 主要国別 石油輸入의 对中東依存度 推移  
(單位: %)

	1978	1979	1980	1981	1982
美 国	34.9	32.0	28.8	28.8	20.0
日 本	77.9	75.9	72.9	68.5	70.1
유럽16個国	68.0	62.9	60.6	57.1	46.9
프 랑 스	78.0	75.3	70.7	69.8	55.1
西 独	46.2	40.3	42.5	43.0	34.1
이탈리아	66.6	64.9	60.7	56.8	55.6
韓 国	98.1	96.7	98.9	89.4	75.3

〈資料〉 Energy Economics Research Ltd., World Oil Trade, 1983. 6.  
大韓石油協會, 「石油協會報」, 各号.

〈表-2〉 日本의 長期에너지需要 展望

(單位: 石油換算, 百万Kℓ)

	1982	1990		1995
	(實 績)	(82年度展望)	(83年度展望)	(83年度展望)
石油代替에너지	149	300	220 ~ 230	270 ~ 300
石 炭	72	115	81 ~ 86	86 ~ 102
原 子 力	27	67	48 ~ 51	74 ~ 79
天 然 가 스	27	68	56 ~ 60	65 ~ 69
水 力	22	30	26 ~ 27	28
地 熱	0.4	6	1.5 ~ 2	3.5 ~ 4
其 他	0.9	15	7 ~ 12	15 ~ 26
石 油	240	290	240 ~ 250	240 ~ 250
合 計	389	590	450 ~ 480	500 ~ 550

〈資料〉 日本 総合에너지調査會 需給部会, 「長期에너지需給展望」, 1983. 8.

□ 石油短信 □

## 原油現物價格 당분간 弱勢지속될듯

日本통산성은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지난 총회에서 하루의 생산상한선과 원유기준가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중 원유생산및 가격을 재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릴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日本통산성의 이같은 전망은 세계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소비국의 소비수요는 여전히 늘지않는 반면 OPEC각국의 실제 원유생산량은 상한선인 1일 1천7백50만배럴을 상회하는 1천8백50만배럴(10월평균)에 달하고 있어 석유과잉현상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비수기를 앞두고 내년 2월 초순경

에 열릴 예정인 OPEC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는 원유가격및 생산상한을 조정키 위한 임시총회가 빠른 시일안에 열릴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OPEC기준원유 가격은 지난 3월총회에서 1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되었고 생산상한도 하루 1천8백50만배럴에서 1천7백50만배럴까지 줄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OPEC 13개국의 원유생산량은 생산상한선을 훨씬 웃돌고 있는반면 서방각국의 석유소비량은 작년 하루 4천5백만배럴보다 2% 정도 적은 4천4백30만배럴에 머물고 있다.